

“7월 급락은 페이크, 9천피 가능” vs “AI 둘러싼 위험 여전”

전문가가 본 코스피 전망

코스피, 지난달 34% 폭락 뒤
하루 만에 1001.89 포인트 반등
外人, 하루 만에 7조 넘게 순매수
엔비디아 등 빅테크 실적 핵심변수
AI 투자 지속 여부 등이 반등 결정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AI)발(發)’ 충격파에 급등락을 반복하며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마치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 공포와 환희를 오가며 거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다. 각종 악재 속에 내성을 키워나간 8월 국내 증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국내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잭스홀 미팅, 엔비디아 등 실적 발표 등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AI 공포에서 AI 랠리로…韓 증시 신기록 잇달아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에 장을 마쳤다. 이는 사상 최대 상승률·상승폭이다. 다만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 하락률은 34% 수준으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에 해당한다. 1990년 ‘3저 호황’ 버블 붕괴, 1997~1998년 외환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등의 사례보다 큰 폭으로 내렸다. 7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코스피가 17.91% 오른 6595.45에 마감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각각 29.95%, 26.81% 오른 지난 7월 31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은 11.63% 오른 719.76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원 내린 1424.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보이던 팔라펠로아 반도체지수가 8.19% 급등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등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 기대가 투자심리를 되살리면서 하루 만에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7월 내내 이어졌던 시장 불안이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국내 증시가 AI와 반도체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AI 투자 둔화 우려가 커질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가 급락했고, AI 투자 지속 기대가 살아나자 반도체주가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실제로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했던 7월 2일(-7.89%), 8일(-5.35%), 13일(-8.95%), 16일(-6.37%), 24일(-5.72%), 28일(-10.84%), 29일(-5.98%)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지수 하락률을 웃돌았다. 그리고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한 7월 31일에는 SK하이닉스가 29.95%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26.81% 급등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위 종목들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치솟은 것은 이례적이다.

호주 ANZ은행의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인 쿤 고는 “코스피는 마치 밭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거래되고 있다”며 “주요 국가의 대표 주가지수로서는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8월 변동성과 반등 사이

증권가에선 여전히 국내증시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다. 실제 지난달 30일 AI 반도체 주가가 회생하면서 증시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거래소(KRX)에서 7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코스피의 극적 소생에 한동안 30조원대 인콰이었던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은 49조원 가까이 급등했다.

국내 증시 가장 큰 베팅목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얻는 소득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났고,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5.6% 증가했다. 2분기 GDI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 11.9%포인트 높게 나타나 1분기의 ‘역대 최대 격차’를 경신했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내 경제의 실질 구매력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경제 성장 구조도 반도체 중심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30%를 밑돌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51%까지 확대됐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8%로 높아졌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 지수는 5150포인트를 최악의 마지노선으로 두고 이후 잠복해 있는 불확실성의 경로를 확인하며 635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더라도 당분간 코스피 6000선 내의 구간에선 투매보단 보유를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증시 이탈보다 분할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가 기존 페이스를 되찾을 경우, 9300선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빠른 시간 내에 코스피가 5700~5800선에 안착할 경우, 7월 말 급락 국면은 ‘페이크’, 속임형 패턴으로 빠르게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 경우 1차적으로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7배 수준인 8200선, 이후에는 8배 수준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4.74배로, 2000년 이후 최저치인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반등의 핵심 변수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예정된 엔비디아, 샌디스크, AMD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꼽았다. AI 투자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지속 여부가 국내 증시 회복 강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전망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MBMG패밀리 오피스그룹 공동창업자인 폴 캄블스는 “앞으로도 이런 날(지난 31일 급등)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과 완전히 괴리돼 있다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가 쌓여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승이 하루짜리 안도 랠리에 그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AI 열풍을 둘러싼 위험이 사라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폭등에도 레버리지 거래 ‘뚝’ 규제 이후 달라진 투자흐름

16개 종목 거래대금 12.4조 → 3조
SK하이닉스 상한가 등에도 거래 감소

미국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20~30% 가까이 반등했지만, 정작 이들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적용된 지난달 3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ETF와 상장지수증권(ETN)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거래일 1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데이터는 레버리지상품 거래가 줄어든 데 그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 밀려났고, 지금은 지수형 인버스 등 다른 ETF로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단순히 거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투자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은 하루 만에 3조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5361억원에서 2228억원으로,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1조2390억원에서 4820억원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장 분위기와 거래 흐름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26.81%, SK하이닉스는 상한가까지 오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상 기초자산 변동성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상품 거래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거래가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기본예탁금 강화와 결제제도 변경이 투자 행태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매도대금은 실제 결제일(T+2) 이후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바뀌 당일 매도대금을 활용한 반복 매매를 어렵게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韓 2분기 성장률 OECD 중간… 0.6% 오르며 성장세 둔화

1분기 2위 → 2분기 8위로
추가 20개국 취합 대기 중
최종 15~20위 사이 예상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국제비교에서 올해 2분기엔 중위권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1분기에 최상위권이었으나 기저효과 영향 받았다. 1일(한국시간) 기준 중간순위 8위에 올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직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0.6%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1분기의 1.8%와 비교하면 성장세는 둔화했다. 단, 전 분기 큰 폭의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큰 탓에 경기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한국은 이날까지 OECD 회원국 18곳 가운데 8위를 달리고 있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나머지 20개국이 추가되면 최종 15~20위 사이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곳 중 13곳의 GDP 증가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2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우리나라는 앞선 1분기의 경우,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다 나중에 집계된 아이슬란드(3.7%)에 뒤져 최종 2위의 성적을 냈다.

2분기 비교에서 현재 1위는 아일랜드



지난 4월9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뉴시스

다. 분기 성장률이 무려 3.9%에 달했다. 1분기의 기록적인 역성장(-7.0%)에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리투아니아(1.7%)와 멕시코(1.5%), 스웨덴(1.4%)이 1%대를 기록하며 각각 2~4위에 자리했다. 이어 핀란드(0.9%), 포르투갈(0.8%), 스페인(0.7%) 순이다.

그 뒤로 한국(0.6%)이 8위, 미국-에스토니아-체코-헝가리가 0.4%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간만에 2개 분기 연속으로 경제대국 미국을 앞질렀다.

이 밖에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모두 0.2%의 성장세를 보였다. 벨기에·오스

트리아(0.0%)는 전 분기 대비 제자리걸음했다.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 0.9%로 한국에 앞섰다. 일본(1분기 0.5%)의 2분기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지난 1분기의 경우,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0.4%, 유럽연합(EU) 평균은 0.0%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3.0%로 제시했다. 지난 1월 당시의 전망치인 2.0%에 비해 무려 1.0%포인트(p)나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